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20년 5월 1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노조파괴 배임, 횡령으로 구속 중인 유시영 회장!

노조파괴 범죄로 유명한 유성기업 유시영 회장은 현재 구속 중이다. 노조파괴 범죄에 회삿 돈을 사용한 혐의로 배임, 횡령으로 2019년 9월 법정구속됐다. 그런데 이런 유시영 회장은 또 다른 재판을 받고 있다. 연차수당 체불, 간부 및 조합원 재해고와 징계, 임금삭감 등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로 두차례 구속된 상황에서도 사태 해결은커녕 잠정합의된 내용까지 뒤집었다. 지금 진행 중인 세 번째 재판에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아직 처벌 안받은 죄가 더 있다!

세 번째 재판에서 강력한 처벌이 내려져야 유성기업의 노조파괴를 완전히 끝장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의 처벌의지가 약하다. 검찰은 유시영회장에게 고작 징역 10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선고는 5월 26일 내려질 예정이다.

유성기업지회는 네 번째 재판도 준비하고 있다. 아직 처벌받지 않은 7건의 사건이 추가로 진행될 예정이다. 유성기업이 노조파괴를 완전히 중단할 때까지 법정 투쟁을 비롯한 각종 압박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연대는 멈추지 않는다!

유성기업지회와 지부, 민주노총 지역본부는 5월 11(월)부터 26일(화)까지 천안법원을 상대로 압박 투쟁을 전개한다. 비록 검찰의 구형이 낮은 수준이지만, 법원이 엄벌을 내리도록 압박투쟁을 벌인다. 매일 집중 선전전을 벌이고 20일(수) 15시에는 양 지부 확대간부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지회는 천안법원 앞에서 오체투지도 진행한다. 지부는 전 조합원 탄원서를 조직해서 힘을 보탬 계획이다.

유성기업의 노조파괴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에 맞서는 우리의 연대투쟁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유성자본이 노조파괴를 포기할 때까지 연대를 멈추지 말자.

반복되는 사망사고!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하라!

경기 이천의 한익스프레스 화재사고로 38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12년 전 이천에서 똑같은 사고로 40명이 죽었는데, 같은 사고가 반복된 것이다. 건설업의 다단계 하도급은 기본 안전조치 조차 무시하게 만들었다. 결국 노동자들만 폐죽음을 당하는 현실이다.

이런 대형 사망사고가 똑같이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가 솜방망이 처벌이다. 12년전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기업은 고작 벌금 2,000만원을 냈을 뿐이다. 중대재해 기업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2020년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는 원년으로 만들기 위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더 이상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함께 나서자.

* 주요 일정 *

- 3차 중앙교섭
 - 5/12(화) 14:00, 금속노조 회의실
- 지부 노안담당자 회의
 - 5/13(수) 14:00, 한온시스템대전지회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기자회견
 - 5/14(목) 11:00, 고용노동부 앞
- 2차 지부교섭
 - 5/14(목) 15:00, 한국KDK
- 유시영 엄벌추구 선전전
 - 5/15(금) 12:00, 천안법원